

‘申의 선택’ 28명 ‘神의 한 수’ 될까



기성용



손흥민

14일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출전선수 명단 발표식에서 선발된 태극전사들. 윗줄 왼쪽부터 신태용 감독, 토니 그란데 수석코치, 김신욱, 황희찬, 이근호. 둘째 줄 왼쪽부터 권창훈, 구자철, 이재성, 정우영, 이청용, 주세종. 세번째 줄 왼쪽부터 이승우, 문선민, 김영권, 장현수, 정성현, 윤영선 네번째 줄 왼쪽부터 권경원, 오반석, 김진수, 김민우, 박주호, 홍철. 마지막 줄 왼쪽부터 고요한, 이용, 김승규, 김진현, 조현우, 러시아 월드컵 공인구 '텔스타 18'.

신태용 축구 대표팀 감독 러시아 월드컵 출전 선수 발표

28일 온두라스·6월 1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평가전 뒤 23명 최종 선발

‘공격수’ 손흥민·황희찬·김신욱·이근호 한국 역대 첫 원정 8강 진출 선봉

손흥민(토트넘)-황희찬(잘츠부르크)-김신욱(전북)-이근호(강원)의 ‘공격수 4인방’이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의 역대 첫 원정 8강 진출의 선봉으로 나선다. ‘20살 공격수’ 이승우(베르디)도 미드필더 명단에 ‘깜짝’ 포함됐다.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은 14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출전선수 명단 발표식에서 28명의 태극전사를 공개했다. 최종명단은 23명이지만 부상자들의 상태를 지켜보는 차원에서 5명을 추가로 발탁했다.

신 감독은 28명의 선수를 데리고 두 차례 국내 평가전(5월 28일 온두라스전·6월 1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전)을 치르고 나서 5명을 탈락시킨 뒤 23명

의 선수를 데리고 러시아 월드컵에 나설 예정이다. 최전방 공격진은 예상대로 ‘손세이셔널’ 손흥민과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무대에서 활약하는 황희찬이 뽐냈다.

신 감독은 손흥민-황희찬 조합을 투톱 공격수로 가동할 전망이다. 가운데 장신 스트라이커 김신욱(전북)과 4년전 러시아 월드컵에서 득점에 성공한 이근호(강원)를 백업 자원으로 선택했다.

왼쪽 날개지원인 염기훈이 부상으로 탈락하면서 신 감독은 대체 자원으로 이청용에게 기회를 줬다. 다만 두 차례 국내 평가전에서 제대로 활약을 보여



주지 못하면 러시아 월드컵에 데려가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K리그 자원으로는 이재성(전북)을 필두로 스웨덴 리그를 경험한 문선민(인천)도 신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여기에 주세종(아산)도 호출을 받았다.

또 중원 조율사인 ‘캡틴’ 기성용(스완지시티)이 2010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월드컵 무대에 나설 기회를 얻은 가운데 정우영(보통 고베)이 더블 불란데 지원으로 뽐냈다. 프랑스 무대에서 맹활약하는 권창훈(디종)과 ‘베테랑’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도 무난히 선택됐다.

눈에 띄는 점은 이승우의 ‘깜짝’ 발탁이다. 신 감독은 자신의 전술 구상에 필요한 선수라며 이승우에게 러시아 무대에 나갈 기회를 줬다.

수비진에서는 김민재가 끝내 부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탈락했지만 김진수는 최근 훈련을 재개하면서 대표팀 훈련 과정을 지켜보며 최종적으로 월드컵에 데려갈 지 결정하기로 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명단(28명)

▲GK = 김승규(보통 고베)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조현우(대구) ▲DF =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 장현수(FC도쿄) 정성현(사간 도스) 윤영선(성남) 권경원(텐진 취안젠) 오반석(제주) 김진수(전북) 김민우(상주) 박주호(울산) 홍철(상주) 고요한(서울) 이용(울산) ▲MF = 기성용(스완지시티) 정우영(보통 고베) 권창훈(디종) 주세종(아산)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이재성(전북) 이승우(베르디) 문선민(인천) 이청용(크리스탈 팰리스) ▲FW =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잘츠부르크) 김신욱(전북) 이근호(강원)

신태용 감독 일문일답

2018 러시아월드컵을 한 달 앞두고 28명의 ‘에비 국가대표’를 선정한 신태용 축구 대표팀 감독은 이청용(크리스탈 팰리스) 등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수 발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신 감독은 14일 대표 선수 28명을 발표하며 최근 소속 팀 경기에 제대로 출전하지 못하는 이청용을 선발한 것과 관련해 “두 번의 월드컵 경험이 있고 개인 기술은 타고났다. 메리트가 있는 선수”라고 설명했다.

중양수비진에 포함된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 등에 대해선 “발탁 이후 논란을 예상했다. 나와 선수들이 안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신 감독과의 문답.

-문선민이 최근 K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중양수비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컨디션 외에 어떤 부분 봤나.

▲스웨덴에서 5~6년 고생하며 스웨덴 선수들을 상대로 정형화된 선수라고 판단했다. 스피드가 좋고 순간 돌파나 저돌적인 면 등 우리가 원하는 과감한 공격할 수 있는 플레이가 나를 흡족하게 만들었다.

-이청용을 발탁한 결정적 계기는.

▲28명 중 누가 월드컵을 가는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청용도 100% 보장할 수 없다. 경기 감각을 끌어 올리면서 팀 분위기와 조직력을 어떻게 같이 만드는지 봐야 한다.

-최철순이나 이정민은 빼면서 고민 많았을 것 같다.

▲예선 10차전까지 50명의 선수가 힘든 여정에서 같이 고생해서 월드컵 진출했다. 반 이상 탈락

“이청용 두 번의 월드컵 경험·메리트 놓칠 수 없었다” “이승우 깜짝 발탁...중양수비진 변화 논란 이겨내야”

하면서 미안한 마음 크다. 이정민은 부상이 와서 경기 출전을 하지 못했고, 유럽 선수들과 상대했을 때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했다. 최철순은 우리나라 수비 중 최고 파이터지만 상대의 신체 조건이 라거나 공격 가담 시 마무리 패스 이런 데선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

-중양수비진 변화가 크다.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이겨내지.

▲논란 있을 거라 예상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선수들이 안고 가야 할 부분이다. 그걸 잠재우려면 나와 코치진, 선수 본인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행히도 김영권, 권경원은 팀에서 경기에 출전하며 감각 끌어올렸다. 이 선수들이 지금까지 보기도 훨씬 잘해줘야 한다. 스스로 논란 잠재워줬으면 한다.

-논란을 감수하고 이청용을 뽑을 수밖에 없었던 메리트는 뭔가.

▲2010, 2014년 월드컵 경험이 있다. 그리고 나의 포메이션에서 필요한 선수다.

-그래도 경기 못 뛰는 선수에게 형평성 논란이 있을 거다.

▲다른 팀에 있었으면 경기 뛰었을지 모른다. 두 번의 월드컵 경험과 나름의 개인 기술을 타고났다. 그런 걸 놓칠 수 없었다. 전술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지켜보자고 생각했다.



이청용

이승우

-오반석을 선택한 배경은.

▲김민재의 부상이 아니었으면 쉽지 않았을 거다. 터프한 맨투맨 수비는 좋은 데 비해 빌드업이 좀 약해 여태 뽑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선 빌드업보다 선 실점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내 두 차례 평가전에서 테스트 많이 할 텐데, 어디에 주목적 둘 건가.

▲유럽파들은 다음 주까지도 경기가 이어진다. 피로를 풀어주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 국내 두 경기는 새로운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의 조합 맞춰서 평가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 23인 발탁 이후엔 조직력과 베스트 11 형성에 초점 맞출 것이다.

신태용호 출항 준비

21일 월드컵 출정식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을 한 달여 앞둔 신태용호가 축구대표팀 소집명단 28명을 발표하고 출항 준비를 마쳤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월드컵 개막 3주 전 월요일’인 오는 21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서 월드컵 출정식을 겸한 미디어 데이 행사로 출발을 알린다.

이날 행사는 소집 대상자인 28명의 태극전사가 선수단복으로 차려입고 레드카펫을 밟고 입장한 뒤 사진 촬영과 인터뷰를 하는 포토타임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선수들은 오후 파주 NFC로 이동해 첫 담금질에 나선다.

대표팀은 오는 28일 오후 8시 대구스타디움에서 온두라스와 국내 평가전을 치른다. 온두라스전은 조별리그 2차전 상대인 북중미의 ‘강호’ 멕시코를 염두에 둔 모의고사다. 이어 6월 1일 오후 8시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가상 스웨덴’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국내에서의 마지막 평가전을 벌인다.

이 경기가 끝난 직후에 월드컵 출정식이 진행되며, 신태용 감독이 마이크를 잡고 팬들에게 16강 진출 달성 의지를 밝힌다.

6월 2일 하루 휴가를 받은 태극전사들은 다음 날인 6월 3일 사전캠프 장소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인근의 레오강(Leogang)으로 떠난다. 하지만 출국 직전 신태용 감독은 월드컵 최종 엔트리 23명을 발표한다.